

보도 일시	2022. 12. 13.(화) 조간 2022. 12. 12.(월) 11:00	배포 일시	2022. 12. 12.(월) 06:00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00)
		담당자	사무관 장유경 (044-200-5303) 사무관 신영락 (044-200-5301)

해양폐기물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한다

- 22년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3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심의하고,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개최 결과'와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동향'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은 국내·외 재활용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움직임에 발맞춰, 정부에서 해양폐기물의 수집·운반·집하 및 재활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4대 전략*,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전처리부터 중간원료생산, 최종 재활용 소재 생산 및 수요처 공급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료공급체계를 갖추고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의 20% 이상을 물질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 추진과제) ①어구 관리 강화, ②안정적인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③재활용 참여기업 지원, ④민·관·연 협의체 구성·운영 등

** 물질 재활용 : 물질의 화학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재생하는 기술. 물질 재활용 외에 물질의 화학구조를 변형시켜 원료로 재생하는 '화학적 재활용'과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열적 재활용' 등의 기술이 있음

최근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는 친환경 ESG경영을 위해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재활용한 운동화, 가방, 시계, 핸드폰 등을 출시하고 있다. 금번 대책은 이러한 트렌드에 주목하여 재활용 기업에 고품질 해양폐기물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 수거, 운반, 집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항만 쓰레기로 처리하였으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를 선별적으로 수거하여 브랜드 의류 제작에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전 항만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이와 함께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우생순 운동'(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해양경찰청)을 어업인들에게 홍보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 등 공공기관 선박에서 발생하는 페로프와 단속을 통해 압수한 불법 어구를 일괄 수거하여 재활용을 추진한다.

또한 염분이 많은 해양폐기물이 좀 더 손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처리 관련 규제 완화 및 전처리·재활용 기업 육성방안 마련 등도 추진된다. 해양폐기물 전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직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폐기물 처분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재활용 참여업체에 가점이 부여된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적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 환경산단 입주우대,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제도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폐기물 재활용 상품 전시회도 개최한다. 이날 전시회에는 해양폐기물을 세척·절단 후 1차 가공한 플라스틱 재생원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된 원사, 의류, 패션 소품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 관련 물품까지 다양하게 전시될 예정이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된 다부처 위원회이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본회의는 이번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중심에서 나아가 고부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 추진체계

비전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환경 조성

목표 (‘27년)

<물질재활용률>

<재활용 원료공급 체계>

‘21년 수거량 대비 **10% 미만 → 20% 이상**
(120.1천톤) (12.1천톤 미만) (24.1천톤 이상)

‘24년까지 구축

핵심전략 및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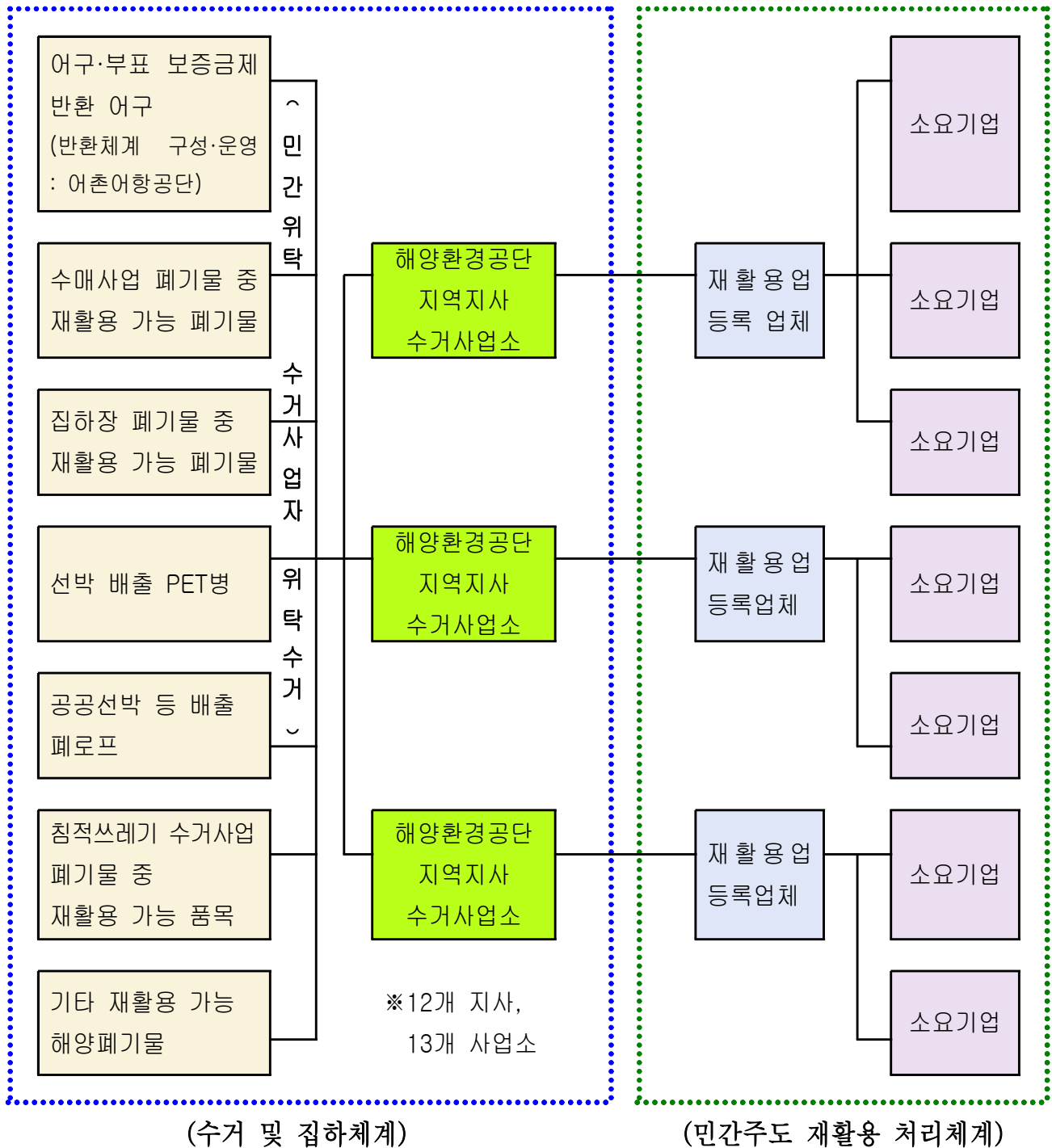
- ◎ 어구관리 강화, 분리배출 체계 정착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 ◎ 재활용 참여기업 지원 및 민관연 협의체 구성·운영

전략과제	추진과제
① 안정적 수거운반 및 집하체계 구축	① 어구관리 강화
	②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 강화
	③ 재활용 집하·처분체계 구축
② 해양폐기물 분리배출 체계 정착	① 어촌지역 배출 및 집하체계 개선
	② 해양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강화
	③ 재활용을 고려한 어구 활용 추진
③ 재활용 기술개발 및 관련업체 지원	① 해양폐기물 전처리시설 확대
	② 재활용 업체 사업여건 개선 지원
	③ 재활용품 판매 지원
④ 협력 및 거버넌스	① 어구관리 및 재활용 담당조직 보강
	② 관련부처 및 민관연 협력 강화

참고 2

해양폐기물 수거·집하·재활용 체계(안)

①분리·현장집하 ⇒ ②운반 ⇒ ③중간집하 ⇒ ④중간처리 ⇒ ⑤최종처리



참고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 예시



페어망 재활용 원사 활용 운동화 제품 (출처: 아디다스)



페어망 재생 플라스틱 활용 시계 (출처: 율리스 나르덴)